



# 정교회주보

제2437호

2023.9.10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돔이 있는 십자가 형태의 비잔틴 양식으로 재건축된 전주 성모 안식 성당(사진)은 2020년 5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되었다. 1992년 축성되었던 기존 성당은 전주시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되었고, 한지받은 부지에 새 성당이 재건축된 것이다. 한편 지난 7월 중순부터 20여 일간의 성화 작업을 통해 성당 내부의 벽화 일부분이 그려졌다.



십자가 현양 축일 전주일  
미노도라, 미트로도라,  
님포도라 순교자  
(제5조 • 조과 복음 3)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5조 부활 찬양송 ..... 82
  - 성모 탄생 축일 찬양송 ..... 186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 사도경 : 갈라디아 6,11~18 ..... 190
  - 복음경 : 요한 3,13~17 ..... 190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

**민**은 사람 중에 은총의 선물을 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삶의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비록 상징적인 율법의 잔혹성은 제거되었지만, 그런데도 복음저자 요한이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요한 1,17)라고 말했듯이 율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했을 때 얻어지는 이익은 훨씬 늘어났다.

왜냐하면 율법에 속한 것은 그것이 할레이든, 여러 가지 제물을 바치는 것이든,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든 무엇이든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은총을 예고하였기 때문이다.

'구원으로 가는 길' 중에서

# 우리 마음의 첫사랑은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바**울로 사도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끝맺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마라나 타!(주여, 어서 오소서)”(고린토 전 16,22)

이 충격적인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고, 그것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파문을 당하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다.”(마태오 22,37-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째서 가장 큰 죄가 될까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영혼이 매우 병들어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작은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하고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사가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었다면 우리는 그 의사에게 평생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럴진대, 지극히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붉은색’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더,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아야 하실 분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큰 죄가 됩니다. 누군가 한 손에는 빛나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다른 손에는 반짝이는 가짜 구슬을 우리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가 가짜 구슬을 고르고 진짜 다이아몬드를 무시한다면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분은 아주 귀하고 값진 진주이시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가치를 지니십니다(마태오 13,45-46 참조).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랑들은 반짝이는 구슬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분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첫사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시대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가치 없고 세속적이며 값싸고 거짓된 사랑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장은 다른 존재를 위해 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장 박동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첫사랑, 즉 우리 마음의 첫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가?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C.S.** 루이스(1898-1963, 영국의 작가)는 그의 작품 가운데 한 곳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부활 이후에 사람들이 사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바라보면서 ‘보시오! 동상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모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로 (죽은 것과 같은) 동상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과 생명,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승리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당신과 나, 우리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은 참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부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과 아이, 이 젊은 이와 이 노인은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곧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신앙과 영원한 생명, 정교(성)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원(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부활하셨음을 나는 아는가?’ 즉, 우리가 들은 것이나 책,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적 경험에서 말입니다. 나는 영원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살지 못하고 있는가? 만일 영원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말은 생명과 능력이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말과 존재, 증언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그저 길을 잃어버린 이 세상의 한 부분일 뿐인가?’라고 말입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9월 14일(금)  
십자가 현양 축일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  
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 복음 3,16)

## 소 식

### ■ 용미리 교회 묘지 벌초 작업

오는 9월 16일(토), 용미리 교회 묘지에서 추석맞이 벌초 작업이 있습니다.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로만 신부, 안토니오스 임 신부, 슬라브 교인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성당과 인천 성당 신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서울 성당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교회 묘지 관리비

### ■ 부산 성당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올해 부산 성모 희보 성당의 여름 수련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습니다. 주제 강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대만과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하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 유초등부 : 8월 4~5일
- 중고등부 : 8월 5일 / 주제 1. 성찬예배에 대하여  
2. 이성 교제에 대하여
- 청년부 : 8월 14일 / 주제 1. 복수와 용서  
2. 큰 시련 뒤 높은 성장  
3. 영적 강함을 위해

## 하느님 향한 사랑

성인의 가르침

니트리오티스의 암문 사부가 대 안토니오스 수도자를 방문했다. 그와 무척 친했던 암문 사부는 이렇게 물어보았다.

“내가 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하는데도 어째서 사람들은 당신을 더 높이 추앙하는 걸까요?”

대 안토니오스 수도자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내가 자네보다 더 하느님을 사랑하나 보네.”